

시월에 쓰는 시들
가을비 몇 주째
비 내리듯 적는 글

시월 시집

十 月 詩 集

KIM CHUL

시월 시집

十月 詩集

차례

01	그대 꿈을 꾸고 있어요	6
02	기르는 이가 있는 땅은 자라게 하는 곳	7
03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지!	8
04	평소 일상에서 전혀 안 하고 살다가	9
05	사는 곳 주위 논밭에	10
06	그 예쁜 새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11
07	없는 사람들은 사람-같이 못 살지	12
08	—지글지글 지글지글 sizzling s...	13
09	생각에 그렇게 많은 뜻이 있는 줄은	14
10	바람 불 때마다 난 느껴요 바람 봄을	15
11	자아가 주체가 되어	16
12	지금 어디예요?	17

13	캔버스에 다 그려 놓고 나서야	18
14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19
15	‘우리 인간 몸속에 살아 있는 세포들의…	20
16	나는 누군가에게 꿈같은 이의 삶이었었소	21
17	사람이 멋대로 맘대로 사는 삶 말고	22
18	행복하지 그렇지 난 참 행복하지	23
19	나는 말을 탈 줄 안다. I can r…	24
20	정신이 숨 가쁘면	25
21	가을 나뭇잎들은 물들어 버린다	26
22	오전 한때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다 보면	27
23	혼자 있을 때 편하다	28
24	지금 나는 아이패드 키보드로 글을 쓴다	29
25	내 마음 소리를	30
26	아침에 일어나선 본차이나 찻잔에 커피	31
27	시월 중순인데 크리스마스트리	32
28	일 년 거의 내내 찬물 샤워하는 나	33
29	오늘 당도한 곳은 오늘 나이였어요	34
30	무슨 연유로 타인의 인정과 재물을	35
31	시월에 쓰는 시들	36

32	싫음은 결핍과 비교에 기준한	37
33	만수무강! 만세, 만세, 만만세!	38
34	이 집에 사는 8년째	39
35	가족이 되는 이들은?	40
36	명命 유한한 인간으로 궁리해 보았다	41
37	예전 나는 털 나이였다. 높게 여김 받...	42
38	시멘트가 굳어 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43
39	인간은 자기 생명의 시작도 끝도 아니다	44
40	인생 공식公式은 정립되는 순간 非公式	45
41	잘 살고 싶어	47
42	대화, 먼저 판단 말고 우선 식별하자?!	48
43	가만히 앉아 봐요. 우리	49
44	한 달 전 바닥에서 주운	50
45	연결해야 사는 때인데	51
46	열심 낼 일들이 필요한 시대	52
47	쇼펜하우어의 인생 제1 법칙이다.	53
48	난 마음껏 마음 내키는 대로	54
49	세상에 오늘 형제 둘이 살고 있다	55
50	죄책도 벌도 자백도 회개도 싸움도 화해도	56

51	세상 자기 성 어찌 못해 날 때려도	57
52	다수를 위한 덕과 의의 존재가 아니었다	58
53	나의 김동길 교수님의 생전 미술품 말씀.	59
54	자기 마음 집 설계, 건축, 관리 없이	60
55	홀연	61
56	‘난 그대가 다시 더 좋아질 줄 알았어...	62
57	털지 좀 말어	63
58	세상 안고 붙어 사는 곳 아니구나	64

그대 꿈을 꾸고 있어요
글 툇고 있는 지금

그대 시詩 읽고 있어요
꿈 깨어 있는 지금

그델 향해 바라 있어요
눈 감고 있는 지금

그대 앞에 내가 있어요
길 없이 있는 지금

그델 위한 내가 있어요
제 아닌 예서 지금

그대 사랑 제게 있어요
날 보러 오는 지금

기르는 이가 있는 땅은 자라게 하는 곳

가꾸는 이가 있는 땅은 열매가 있는 곳

즐거운 이가 있는 삶은 천국이 임한 곳

고마운 이가 있는 삶은 낙원에 속한 곳

독서家 이가 있는 터는 배움을 사는 곳

작문家 이가 있는 터는 상상을 사는 곳

아끼는 이가 있는 이는 우리를 이룬 이

도와줄 이가 있는 이는 우리를 받은 이

사랑의 이가 있는 곳은 지상의 천국 땅

자유론 이가 있는 곳은 천상의 지상 땅

진실한 이가 사는 것은 거룩한 신의 삶

자율의 이가 사는 것은 유일한 진짜 삶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사람이면 그래그래, 올치!¹

저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지!

그래그래, 사람이면! 올치!

나중엔 되고 나중엔 안 되지!

사람이면 그래야지! 올차!

나에겐 되고 나한테 안 되지!

그래야지? 사람이면? 옹지!

그래야 되지? 이해가 안 가도?

사람이면 그런 거지? 알지?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안 해도

사람이면 내 말 들어! 맞지?

사람들 생각이 죄다 이렇다

1 올치: ‘옹지’를 빠르게 발음한 형태(중부, 서울 구어). 올치: 충청, 강원 일부. 올차·올차: 전라도 일부.

평소 일상에서 전혀 안 하고 살다가
하루만 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질문이 창의적이고 기발하지도 않다
하루만 해 보는 건, 해도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고 싶다
평소 일상에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아마도 평상시 사는 곳 평소 넓게 살기
어쩌면 매일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살기

‘하루만이라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들은 단 하루도 그렇게 못 산다

하루만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그것들을 거기 그렇게 매일 하고 있는 사람

사는 곳 주위 논밭에
가을이 노랗게 내렸어요

여문 곡식들 수확하니
올 농사가 풍년이래요

장마도 태풍도 안 와서
비바람 피해가 없었어요

수확량이 작년 몇 배래요
충실로 일군 결실이겠지요

그런데 전국 모든 농사가
이렇게 잘되진 않았어요

극도의 가뭄이 있었던 올여름
몽땅 증발된 물, 저수댐, 저수지
vs. 보존된 물, 저수貯水²방식 차

2 저수貯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저수지나 호수, 못, 지하 저장소에 물을 모아 둬. 또는 모아 둔 물.

그 예쁜 새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봄에 둥지 틀고 여름 내내 노래했었던

철새들도 아닌 것들이 지금 어디 있나?

주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 모르겠네

온갖 종種 새들 비행법도 제각각 생생한데

울지도 지저귀지도 노래도 얹으니 모르겠네

팽귄 새, 진노랑 새, 파란 새, 귀신 소리 새

들리지 않는 빠꾸기 빠꼭처럼 보이지 않네

여름 초가을 내내 식량 저장한 다람쥐마냥

난알들과 벌레들 말려 쟁여 놓는가 모르겠네

여름 내내 애 낳고 벌레 먹었던 개구리마냥

이부자리 보고 배불리 먹고 있나 모르겠네

없는 사람들은 사람-같이 못 살지

있는 사람들은 사람-같이 안 살지

노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지

버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못 살지

가는 사람들은 사람 같이 못 살지

오는 사람들은 사람 없이 못 살지

젊은 사람들은 사람 길게 못 살지

늙은 사람들은 사람 순간 못 살지

슬픈 사람들은 사람-살이 못 살지

괴론 사람들은 사람 노릇 못 살지

자는 사람들은 의식 갖고 못 살지

깨인 사람들은 비몽-사몽 못 살지

—지글지글 지글지글 sizzling sizzling³
 고기 굽는 소리가 귀로 들어와 입으로
 숯불 고기 냄새가 코로 들어와 입으로
 침샘이 무엇인지 몰라도 군침이 돈다⁴
 —입에 고기 한 점 넣어 달라는 본성本性
 지글지글이 식품 디자인 작품 한 점이다
 시즐링은 사고 작용 없이 침을 유발한다
 코를 막아도 소리에 그대로 반응하는 몸
 —부글부글·부글부글 simmering·simmering⁵
 본성적으로 싶음liking⁶하며 끓고 있는 속심
 마음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 내며 끓고 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는 이가 없다
 —꿈도 상상도 좌뇌 사고 제어 회로를 거쳐
 세련되고 아름답게(그런 척하며) 디자인된다
 시머링 소리는 모던 삶-디자인 작업 중 삭제
 군침 돌게 하는 본성의 소리에 침이 고인다
 하나 교육된 본능이 목구멍으로 바로 삼킨다

3 sizzling(시즐링): 지글지글 소리 내는.

4 군침이 돈다: 영어로 one's mouth waters.

5 simmering(시머링): 부글부글 끓는 소리 내는. 〈노염·반란 등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6 싶음liking(글쓴이): 자기 성정性情에서 끓고 있는 자신만의 싶음(애호, 취향, 상태).

생각에 그렇게 많은 뜻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시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무려 여덟 가지예요
네댓 개 정도로 판단했어요. 잘못 생각

사전에서 봤었던 생각이 나긴 했어요
제대로 알고 싶은 생각에 다시 찾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생각으로 보니
이렇게들 쓰이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평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생각하며
매일을 보내도 생각도 못 했었던 거죠

앞으로도 무엇을 제대로 아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설레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사전 생각도 좀 더 해 줘서
생각 깊은 글동무로 곁에 잘 두려 해요

바람 불 때마다 난 느껴요 바람 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바람 모습을

여름에도 없었던 우기가 가을에 왔어요
한 주 내내 비가 영국 런던처럼 내려요

바람 없는 날에는 부슬비가 점선 직선
바람 있는 날에는 부슬비가 점선 사선

구름이 분무하는 미스트mist가 이슬비로
내릴 때 가만 보면 바람이 세밀히 보여요

집 밖 우리 집 산울타리 넓디넓은 공간
그 한 공간에도 바람은 하나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바람, 하늘과 땅 사이 이곳저곳
날아다니는 천사들의 숨과 날갯짓일까요?

자아가 주체가 되어
 소유의 주인이 되어
 목적들 위하여 행위
 저만의 목적⁷을 이룸
 자신을 못 보고 떠남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자기를 목적어 삼아
 나하려 일하고 있다
 나넣어 생각을 한다
 나에게 목적은 나다

목적도 의도도 없이
 의식도 행위도 없이
 경험을 경험히 되게
 자체의 구조로 아는
 선험적⁸ 인식의 주관⁹
 우주와 세계의 원력¹⁰

7 목적目的(글쓰기): 바라보는 바, 바라보는 방향. [사전]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

달성해야 하는 목표.

8 선험적先驗的: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어, 대상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것. a priori.

9 주관主觀: 어떤 일의 주가 되어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

10 원력原力: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

지금 어디예요?

저기 언제 가요?

시간을 공간으로

공간을 시간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이만큼 가야 해요!

거리를 수량으로

수량으로 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얼마나 있어야 하지?

존재를 근심으로

근심은 금전에서

살아 있나요? 있음을 체험하며

살려 하나요? 더있음 연연¹¹하며

11 연연戀戀하다: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캔버스에 다 그려 놓고 나서야
 내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됐어요
 나만의 밑그림이 있긴 했었지만
 매일매일 개칠¹²하고 덧칠하고
 어떤 풍風도 격格도 없는 그림

다시 그릴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그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
 개의치 않고 내 밑그림을 따라서
 그때그때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에
 변심하지 않고 내 색과 스타일¹³로

이제야 깨우친 그림과 나와의 인연
 일기일회¹⁴ 다시는 못 그릴 내 그림,
 둘러보니 온통 나 같은 그림들 천지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해도
 인생 마음껏 나를 그려 내야 했었는데!

12 개칠改漆: 칠한 물건에 다시 칠함. 한 번 그은 획이나 글자에 다시 붓을 대어 그음.

13 스타일style: 중국어로는 풍격風格.

14 일기일회一期一會: 평생에 단 한 번 만남. 또는 그 일이 생애에 단 한 번뿐인 일임.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성 다해 하면 못 할 일이 있나요?

성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매 순간 감사하면 불행할 일 있을까요?

감사 태도가 모자라면 족할 일 있나요?

원하는 바를 바로 알면 못 되는 일 있었나요?

원하는 대로 하려 하면 잘되는 일 있었나요?

오랫동안 붙잡고 반복하지 않은 내 것이 있나요?

달리 얻은 것들은 되레 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진실하고 유익하고 다정한 말만 하면 좋겠어요

꾸며 내고 무익하고 짜증스런 말들은 안 하구요

늘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 달라 하겠죠?

아니요! 돈 더 버는 비결이 있다 해야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 몸속에 살아 있는 세포들의 수는?’

ChatGPT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우수수수

몸 안에 살아 있는 세포들만 37조 개라고 해요

하루 동안 죽는 세포만 약 3,300억 개이구요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세포도 비슷한 수라네요

초당 400만 개 세포가 죽고 태어나는 우리 몸

돈이 제일인 요즘 금 400만 돈으로 치환해 보니

금 15톤, 한국 금 보유량의 14%로 2조 8천억

순금 한 돈에 25년 10월 시세로 약 70만 원

생명 세포를 금 가격에 맞추어 매매한다면?

매 초당 계속 2조 8천억씩 사고팔고 하면서

한 몸 당 자산은 늘 약 2,590경¹⁵ 원인 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마 16:26) 생명은 Priceless¹⁶!

15 京京: 십진급수의 한 단위. 조兆의 만 배. 10의 16승.

16 priceless: price(가격)+-less(없는) → 아주 귀중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나는 누군가에게 꿈같은 이의 삶이었었소
이젠 누구에게도 별 볼일 없는 삶입니다

이전보다 단련 숙련됐음에도 소용없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리 통하지 않는 이에요

한스러이 외로워 홀로 통탄하지는 않아요
내가 선택한 내가 된 길로의 삶일 뿐이죠

다만 이젠 제발 어서 누군가 날 갈급하는
이를 만나 답소 나누고 싶은 갈급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나 자신이 못 되고
나도 함께할 수 없는 괴이한 남자 놈 됐소

내가 진득하니 살다 활력 소진하여 자진¹⁷ 되든
그런 와중 휩쓸려도 지짜 만나 더욱 자진하든

17 자진自盡: 스스로 목숨을 끊음. (첫 번째 자진) 기운 등이 저절로 다하거나 없어짐. (두 번째 자진) 스스로 힘과 정성을 다함.

사람이 멋대로 맘대로 사는 삶 말고
자기 멋과 향기 나는 삶을 원한다면

첫째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 존재를
둘째 속 깊이 품고 있는 것의 내용을
셋째 진심이 꿈꾸며 나아가는 방향을
넷째 존재·내용·방향의 모양을 디자인

직접 만지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파악
몸소 다시 계속, 계속 다시, 또 & 또

four-bit

반만¹⁸이라도 4B 연필로 쓱쓱¹⁹ 스케치하고
아닌 것은 아싸리²⁰ 딱 지우개로 쓱쓱²¹ 지우고

구상하며 상상하며 도상²²하며 일상에 구현해 간다
어떤 인간으로 어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지를

before

너무 늦기 전에 B4^紙에 글·선·도안·그림들로
모두가 쓰는 A4보다는 조금은 크게 제 인생 도안

18 four-bit: 50%의. 시시한, 허접한.

19 쓱쓱: 거침없이 일을 해치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20 아싸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21 쓱쓱: 자꾸 거침없이 문지르거나 비벼 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22 도상^{圖像}: 특정한 관념 체계의 의미를 주제로 하여 그림으로 제작된 인물 또는 사물의 형상.

행복하지 그렇지 난 참 행복하지
바람대로 바라보니 감사할 일뿐

바람 없이 바라는 것들만 있으면
즐겁기만 하거나 슬프기만 하겠지

바라는 것을 갖고 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

좋다 나쁘다 즐겁다 슬프다. 기분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본다. 바람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바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 일상

바람대로 안 되면 그때는 불행?
그때도 바람직한²³ 바람들로 행복!

광야 같은 인생 때로 독사처럼 날 물 때로
맘 들어 내 바람 바라보면 바람처럼 거뜰히²⁴

23 바람직하다(바라-ㅁ직-하다): (사람이나 제도, 방식 따위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할 만함.

24 거뜰히: 마음이나 몸이 매우 가볍고 상쾌하게. [예] 약을 먹고 병석에서 거뜰히 일어났다.

나는 말을 탈 줄 안다. I can ride a horse
말 타고 들판을 달리고 산길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말을 잘 다룰 줄 모른다.

I can't control my tongue

언어는 몇 개 구사하지만 말을 부리지 못한다

말은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인데 잘 못 다룬다
마음은 평화로 되어 가는데 때때로 말실수다

말이라는 도구를 말이라는 탈 것²⁵을 연습해야
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연주할 수 있다

말을 마음이 부리고 마음에게 태우게²⁶ 한다
이를 위해 나는 공손홍과 백아에게 배운다

말에 신중하되 발언에 능했던 말 부림의 화신
마음의 소리를 현絃들에게 태운 거문고의 명인

25 타다: (사람이 현악기를) 줄을 통겨 소리를 내다. 연주하다.

26 태우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현악기를) 줄을 통겨 소리를 내게 하다. ‘타다’의 사동사使動詞.

정신이 숨 가쁘면
속절없이 빨라진다

지금 하나도 제대로
다음 하나도 못 한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것들

괜스레 마음만 바빠
신경만 날카롭게 된다

한 일 전에 한 호흡
一言
일 언 전에 한 생각

이 동작과 다음 사이
한 멈칫, 호흡 한 숨

하던 것 놓고 놓인 것 보고
拍
한 박 쉬고 다음 보고 잡고

가을 나뭇잎들은 물들어 버린다
그러다 색색 입은 잎들을 버린다

붙어 있는 것을 어쩔 저리 남김없이
떨궈 내야만 하나 의문이 들 정도로

높고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추정²⁷
가장 시절 좋은 가을이라도 곧 간다

가을 다음 세상은 겨울 어는 왕국
만물이 추위로 뒤덮여 숨죽여 산다

뿌리와 줄기, 가지들은 나목²⁸ 되어야
따뜻한 옷 없이 난방 없이 살 수 있다

봄은 씨앗과 꽃, 여름은 꽃과 열매를
그담 시대 앞서 버린다. 추목²⁹ 잎 하듯

27 추정秋情: 가을의 멋이나 분위기.

28 나목裸木: 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나무.

29 추목秋木(글쓴이): 가을의 나무들.

오전 한때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다 보면
청취자들의 사연들이 짹짹 중간중간
진행자의 높은 식견 깊은 음으로 낭송된다

오 년 이상 듣다 보니 피디와 작가가 뽑는
사연들에는 공통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슬픔과 아픔 중 음악이 위안과 치유가 된다’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의 말처럼, 인류는
언제나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했다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 강한 본성 때문에

이전에는 자연에게 신령한 이에게 노인에게
중세 이후에는 사제에게 신에게 이제는 AI에게
물어봐도 될 사람이 있음 & 물어봄의 행위

음악을 들으면 자신이 물어봐도 될 이가 된다
음악이 들리면 마음이 물어봐도 될 이가 된다
음악에 속마음 다 드러내 보이면 위로와 치유

혼자 있을 때 편하다

함께 있을 때 재밌다

집에 있을 때 편하다

어딜 갔을 때 재밌다

쉬고 있을 때 편하다

뭔가 하는 때 재밌다

가족 있을 때 편하다

친구 있을 때 재밌다

돈이 있을 때 편하다

취미 있을 때 재밌다

사랑 있을 때 다된다

연인 있을 때 다좋다

내가 있을 때 다된다

내가 있을 때 다좋다

지금 나는 아이패드 키보드로 글을 쓴다
키패드들을 손가락 끝으로 살살 느낀다

타이핑하면서 혹은 잠시 멈추고 있을 때
F와 J 키 패드 방지턱을 넘어갔다 왔다

사면이 골로 패인 패드 사이사이 이리저리
피부 신경이 자극을 받으니 눈은 잠시 감는다

지금은 당연 시視 없이 타이핑하고 있는 중
잠깐씩 뜨지만 줄곧 감고서 오직 촉觸피셜

보지 않고 믿고 쓰는 자에게 촉감의 축복을!
수정은 나중이요 지금이 바로 그 시 그 시절!

집 밖 가제보 스피커 소리 파장이 열린 문을
통과해 내 귀를 건드린다 지금은 감촉의 천국

내 마음 소리를
소리 나는 대로
글로 적어 본다

나는 바로 그것
나는 바로 그곳
나는 바로 그때

I am It

I am It

I am It

바로 그것 소리
바로 그곳 소리
바로 그때 소리

나라 하는 마음
소리 내는 대로
글로 적어 봤다

아침에 일어나선 본차이나 찻잔에 커피
글 읽고 글 쓰면서 오른 곁에 내내 두고

오후가 되면서는 스탠리 컵에 담은 생강차
글 쓰다 노래하고 춤추다가 글 쓰는 내내

3시가 되면 2층 운동실로 올라가 2L 생수
몸 부위별로 단련하는 루틴 두 시간 내내

하루 한 번 식사하는 저녁 시간에는 주채³⁰
주酒는 음식菜의 혼魂, 영靈육채肉菜 즐거운 내내

30 주채酒菜(jiǔcài): 중국어 회화에서 안주, 下酒菜와 같음. 안주按酒: 술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시월 중순인데 크리스마스 트리
블루 투사우전 크리스마스 전구

집은 검정이고 집 밖 불은 파랑
오후 21 ° C 트리 조명은 on 中

계곡 건너 있는 도로 오가는 차들
아니 벌써 해도 맘 미리 joy하겠지

아마 검은 집 하얀 눈에 덮이는
겨울 오는 때 파랑보다 더 파랑

아직 상거³¹ 먼데 제 구유³² 오는 듯
맞이하는 이에게 왕이 오셨도다!

31 상거相距: 서로 거리나 시간이 떨어져 있음. 또는 서로 떨어진 거리나 시간.

32 구유舊遊: 옛날에 함께 놀던 동무.

일 년 거의 내내 찬물 샤워하는 나
 시월 중순이면 컨디션 최하일 때도
 더운 물을 내 몸 거죽에 대지 않는다

오늘 오후 운동 후 잠시 몸 쉬기 전
 하던 대로 차갑게 몸을 씻고 있는 중
 환청도 환각도 환시도 아닌 목소리들

길어진 머리 거품들을 깊고 부드럽게
 매만져 씻어 내고 있을 때, ‘고마워요’
 따뜻한 음성들이 여기저기 분명 들려서

감은 눈 더 꼭 감고 가만 찾아 들어 보니
 내 피부 내 온몸 세포 신경들이 서로 간
 감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³³’

눈물 콧물로 차가운 물도 뜨겁게 닿는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
 이젠 일상 매 순간 귀 기울이면 들려요

33 ∞: 무한대 표시 기호.

오늘 당도한 곳은 오늘 나이였어요
오늘 성공한 것은 오늘 나이였어요
오늘 성취한 것은 오늘 나이였어요

어제 가려는 곳은 오늘 나였었네요
어제 계획한 바는 오늘 나이였어요
어제 잠 속 꿈은 오늘 나이였어요

내일 오겠죠 오늘 밤 지나며는
내일 하겠죠 오늘 남긴 것들을
내일 오면은 다시 오늘 되겠죠

살아 있다면 거긴 여기일 거예요
살아 내려면 부디 여기서 하세요
살아 있는 중 무어든 경험해 봐요

오늘은 어제 때문에 있지 않아요
오늘은 내일이 제공하지 못해요
오늘에 있다면 그대는 그대로 삶

무슨 연유로 타인의 인정과 재물을
그렇게들 중요시³⁴ 갈구³⁵하나요?

죽대³⁶ 없이 물질과 물건으로 살아 보려고
아등바등 물욕 명命받아 제명命 다 쓰네요

원한 것 다 소유하고 다 성취하고 나고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좀 파악해요

그것들 위한 재정과 소유물 필요만큼 갖고
그들을 지금 살뜰히³⁷ 체험하며 경험하세요

당장 나 죽어 세계 구성 물질된다 하여도
어쩔 내 싶음을 외면하고 물物들만 좇나요?

더 나아 보이는 것과 곳, 사람투성이 세상
나는 나 아닌 것과 곳, 이가 될 순 없어요

34 중요시重要視: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봄.

35 갈구渴求하다: (사람이 무엇을) 몹시 애타게 구하다.

36 죽대(主+대):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꿰뚫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 기풍.

37 살뜰히: 일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하여 빈구석이 없게. 언행이나 정 따위가 깊고 자상하게.

시월에 쓰는 시들
가을비 몇 주째
비 내리듯 적는 글
어둠과 나, 화면 빛
먹고 마시고 난 후
내가 누군지 모른 채
나의 생각이 날 쓴다
내일이 온다면 이 시
나 아닌 내가 썼다며
슬며시 지울 수도 있으나
너무도 나다운 지금 여기
아직도 내가 잘 모르는 나
그도 나이라 빛처럼 빛난다
이상도 하다 존재요 삶이요
풀려 하면 다 못다 풀 난제
그저 두면 전신으로 느껴지는
나라는 존재의 현현과 경험들

싫음은 결핍과 비교에 기준한
욕망과 절대로 상이한 욕구다

본성은 세상의 본능적 욕망과
개인의 성정의 싫음, 둘 된다

싫음을 알아내고 싫음을 실제로
살려 한다면 버리고 떠나야 한다

세상이 약속하는 인정 안전을
세상이 던져 주는 명예 금전을

자기 자신 싫음, 그 정신 하나만
챙기고 받았던 것들은 놓고 간다

제 몸 하나로 제 싫음과 상봉하려고
험산준령 죽음 걸고 가 끝내 이른다

만수무강³⁸!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이 왕을 알현할 때 외친다

일만 만萬 자는 그저 숫자가 아니다

전체로 모든 것, 빈틈없이 온갖 것

예전 학교 다닐 때 학기 전체 성적을

수秀 우優 미美 양良 가可로 매겼다

그중 수는 평균 90점 이상이다. 탁월!

그런데 99점까지이다. 100은 만점이다

만 & 수우미양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은 세상에 없고 사람도 없다

늘 만의 하나가 있다. 만 가지 다는 없다

만의 한두 가지가 나의 만사의 원리이다

난 오만날³⁹ 오만 가지 다 하려 하지 않는다

일상 관심·시선·수고는 바로 앞과 곁 한둘

38 만수무강萬壽無疆: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삶. 건강과 장수를 축원할 때 쓰는 말.

39 오만날(五萬+날): 언제나 늘.

이 집에 사는 8년째
3년 감나무를 4년 전
심었었어요. 일곱 살

올해야 감이 맺혔어요
그것도 대봉 삼십 개
첫 열매를 따 먹었어요

맛은 그 자체가 디저트
부드럽고, 달고, 향 깊은
매혹적 식감과 빛깔 과육

그런데 주먹만 한 대봉에
씨가 없었어요. 無 감 씨
너무 일찍 따서 그렇대요

그런데 또 익으면서 씨가
생기는 법은 없다 그러데요
봄에 암과 수가 못 만나서

술에 수분이 안 돼 씨 없는 감
씨 없어도 잘 익어 맛있는 감

가족이 되는 이들은?

혈연상으로는 부모 형제 자식 친척
법적 관계로는 혈연관계 아내 그 외

가족 같다 할 수 있는?

생활 관계로의 친구 동료 선생 제자
애정 관계로의 친구 애인 연인 동물

가족 제도, 관련법, 구조, 형태
모두 개정 개선 변화되고 있는 한국
그러나 가족의 혼은 현대 가족에도 없다

가족 같다 할 수 있고 가족이 되는 이들
서로 간 정情한恨전賤 빼면 한 집 이뤄
한 방향으로 사는 희喜애愛교交는 없다

법률·제도 변경으로는 계속 차 두고 말 탄다
인식·형태 변화로는 정말 실물 같은 그림이다
공거·유닛이라는 새 삶이 탄생·성장해야 한다

유닛unit 구성원 각각 & 함께 돕고 세우는 공거供居
속 빈 껍데기들은 가라! 소수 속 찬 알맹이들만 오라!
누가 나의 가족인가? 진실한 사랑의 법대로 행하는 자!

명命 유한한 인간으로 궁리해 보았다
죽을 운명의 인간을 어디에 놓아둘지
신 진리 절대자 이념 신념 뭐라 하든
그런 육체이지 않은 것들의 높이까지
나를 갖다 놓으려다가는 도중 붕괴다

하여 하늘도 산 위도 반석 위도 아니고
내 집 흙담 위에 나는 나를 올려놓는다
해서 마치 오뉴월 장마에 흙담 무너지듯
생명 우기가 오면 쉽고 가볍게 자연스레
스르르 그리 무한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

예전 나는 덜 나이였다. 높게 여김 받았다
지금 나는 더 나다운 나. 낮게 평가된다

과거 삶은 힘을 다했다. 가치 있는 자였다
이젠 삶의 힘을 빼 간다. 별 쓸데없는 자다

이전 나는 높이 올랐다. 인정 인기 있었다
작금 나는 땅을 밟는다. 홀로 혼자 땅이다

시세가 쌀 때 사면 귀한 것도 싸구려 되고
싼 것도 시가가 비쌀 때 팔면 귀한 것 된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자인·자백할 수 있는 바
노력·능력 아닌 상술로 날 승강⁴⁰한 적 없다

분명 세목장⁴¹에서는 내 시세가 싸졌다. 인정
허나 비로소 나는 나를 만나 살고 있다. 진실

40 승강昇降: 오르고 내림.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욕신각신하며 다툼.

41 세목장世目場(글쓴이): 세목+장. 세상 사람들의 주의나 관심으로 형성된 장터.

시멘트가 굳어 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타설 후 하루 이틀 물을 뿌려 주면은
거의 다 굳어져 단단한 바닥이 된다

건축 재료로 이만큼 사용 간단하고
처리 공정이 간편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시멘트. 굳는다

고대 바다 생물들의 사체들이 해저에
쌓인 채 수백만 수천만 년간 압으로
굳어진 것이 석회석, 시멘트의 주원료

집 주위 돌산에 죽은 나무들이 많다
물 먹은 채 썩은 나무도 있긴 하지만
주로 딱딱하게 말라 시커멓게 굳어 있다

글 쓰는 내내 보이는 집 주위 시멘트 바닥
바로 앞산 쓰러져 있는 검게 굳은 나무들
내 마음 바닥, 시멘트? 심목⁴², 검게 굳은 나무?
감사에 공구리⁴³ 치고 죽은 나무 굳힌 마음?

42 심목心木(글쓴이): (마음을 나무로 비유) 마음 나무.

43 공구리 치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공구리’는 일본어 ‘콘크리’가 변형된 말. 일제 강점기에 퍼진 말.

인간은 자기 생명의 시작도 끝도 아니다
자기 삶이라 해 봤자 우주와 자연 속이다

우연과 운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곧 생명과 삶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아닌 것들이 무언지
그러나 내겐 불가해하다. 내 존재가 무언지

해서 이제로는 나는 주인공 노릇하며 사는
그런 헛짓 인생 말고 나를 배우 되게 한다

나를 캐스팅하여 삶-연기 시키는 감독이다
나는 매일 각본을 새롭게 써 내는 작가이다

우연과 인과라는 푸티지footage⁴⁴들 중에서
나를 연기하도록 새 배우를 티파주typage⁴⁵

생사의 주관자가 아닌 오늘 일상의 감독으로
주인이 촬영해 놓은 나들 중 하나를 캐스팅!

44 푸티지footage: (영상, 영화, 방송) 편집되기 전 원본 촬영 영상.

45 티파주typage: (연기, 배역, 캐스팅) 각본에 있는 배역과 외모, 인상이 어울리는 배우. 그 배우를 캐스팅함.

인생 공식公式은 정립되는 순간 非公式
 공식화公式化되는 순간 인생은 미지수
 항등식恒等式⁴⁶은 사는 동안 아닌 장례식
 해서 나는 나를 방정식方程式⁴⁷화化한다
 미지수가 하나ego 있는 단일 방정식이다
 알 수 없지만 마음 생각 감정 언행에 작용하는 x

$$I \pm Ix^n = I$$

I는 나 자신. x는 나의 자아ego-미지수未知數. 자아가 미지수.
 n은 자아에 거듭 곱해지는 존재being-상태의 지수, 곧 자승
 自乘(x×x×x...)의 횟수.

계수計數로의 n은 1에서 ∞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자아를
 거듭 곱할수록 xⁿ은 부풀고, 나는 I에서 멀어진다. 허나 난 n을
 영零naught으로 한다. 전무全無는 아닌 零, 비가 오는 듯 아닌
 듯. no+whit, 있는 듯 없는 듯. 0은 아니되 0에 한없이 가까운

46 항등식恒等式: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는 등식.
 3x+2=3x+1+1 같은 것.

47 방정식方程式: 어떤 미지수未知數에 대해 두 식이 서로 같다고 나타낸 식. “=(같다)”
 기호로 연결된 두 식 중, 하나 이상의 미지수가 포함된 식.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그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 즉 해解solution를 찾는 것.

수($0 < n$). 식이 성립하려면 $Ix^n = 0$ 이어야 하고, I 는 0 이 아니니 $x^n = 0$, 곧 $x = 0$. 해서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방정식의 해解는 $x=0$.

지금now, 곱하기 자신(자승, square)하지 말자. 한마음, 한호흡, 여기 한 체體. 그러면 ego-eggs 수가 격감하여 없다 할 정도 된다. 그때 상수⁴⁸인 진아眞我が 방정식을 손 안 대고도 푼다. $x=0$. $I \pm 0 = I$. 悟!

48 상수常數: 변수가 등호 왼쪽에 하나인 단일 방정식 ‘ $\sim = !$ ’에서 ‘!’에 해당하는 운명 정해진 수, 값.

잘 살고 싶어
잘 사는 사람
참 되고 싶어

멜 이유 없이
늘 마음 불안
맘 편치 않네

나 그들 보다
더 나은 사람
너 비교 나와

잘 사는 사람
잘 산 _ 사람
두 칸 = 비교

돈 많이 있어
남 인사 받고
잘 사는 사람

내 좇대 일상
남 비교 없이
잘 산 사람

대화, 먼저 판단 말고 우선 식별하자?!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라 해도

심지어 밥 같이 먹는 식구라 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이해 가능?!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르면 말해 모해

마음 씀이 영 아니면 마음 써 뭘 해

심사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몰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얘기해 모되

보는 높이가 다르면 진심도 못 닿지

귓속 깊이가 다르면 진정도 안 들려

말 온도가 다르면 햇불도 물통 속이지

말 방식이 다르면 이해가 모야? 오해!

종지에 쏟아부어 준들 종지만큼 남는다

얕팍한 그릇은 어떤 말의 닿음에도 깨진다

별개 달궜진 냄비는 지도 남도 검게 태운다

비워 놓지 않은 그릇에는 무엇도 더는 무리

우선 듣자. 오해 말고 이기려 말고 판단치 말고

우선 열자. 양쪽이 통해야 진심이 오고 간다

우선 식별. 의도, 온도, 속도, 방향을 이해해 안다

다음 결단. 진심 안 통해 서로 독백이면 확실히 단념!

가만히 앉아 봐요. 우리
고요히 있어 봐요. 우리
눈감고 있어 봐요. 우리
쉬면서 있어 봐요. 우리
들으며 있어 봐요. 우리

어디로 가고 싶나요? No!
말할 이 필요하나요? No!
봐야 할 것들 있나요? No!
숨 막히는 일 있어요? No!
남들 말 아직 들려요? Nope!

여기 너무 마음에 들지요? Yes!
침묵과 대화 둘 다 깊죠? Yes!
지금 보이는 것들 좋죠? Yes!
호흡하고 있음에 참 편쵸? Yes!
모라 하든 나 됐으니 됐죠? Yep!

한 달 전 바닥에서 주운
도토리들에 옷 입혔어요

에나멜 도료 페인트로
빨강하고 그린 색으로

스물여섯 개 툽글툽글
팔 다리 없이 머리 몸

머리는 성탄절 그린 색
몸에는 크리스마스 레드

핀셋으로 몸 끝 잡고서
살살 붓 칠하는 거예요

한 달 전 주웠었던 곳 가
주워 올 작은 나뭇가지에

내일이면 잘 마를 별빛
새 모자 쓰고 새 옷 입은

크리스마스 요정들 26명
초대해 반짝이게 할 거예요

연결해야 사는 때인데
 단절하고 살고 있구나
 봐야 하는 사람 없는데
 누구라고 만날 것인가
 보여 주고 싶음 없는데
 무어라고 내놓⁴⁹ 있을까
 이사 시간⁵⁰ 혼자임에도
 종일토록 감사 부른다
 평안안락⁵¹ 모두 있으니
 홀로라도 천국 살이다
 결으로서 이를 함께로
 살아 보길 하는 이들만
 하늘로서 이곳 내리면
 하늘나라 더욱 地上天⁵²

49 내놓(글쓴이): 내어 놓음.

50 이사 시간(글쓴이): 24시간. 하루 종일.

51 평안안락平安安樂: 평안과 안락. 근심과 걱정, 탈이나 번민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

52 지상천地上天(글쓴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나의 이 땅 천국.

열심 낼 일들이 필요한 시대
열심 내게 할 것들이 없으면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지루다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생들
하나같이 열심이 없다고 했다
열심히 살려 일하러 온 친구들

열심히 열심 내게 하는 일들
그것들을 해야 살 수 있기에
열심히 찾고 구하고 비교한다

허나 열성과 열의가 속에 없다
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열심熱心 안에 열을 일으키는
촛불 성誠들에 불붙어 있는가?
말과 마음과 생각과 동작만 번잡?

열심히 할 일이 뭐든 열심 품은 나로

쇼펜하우어의 인생 제1 법칙이다.

‘내 맘대로 남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나 역시 인생 첫 번의 원리가 있다.

‘남들은 내 맘을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하며 살다 간다

여기서 벗어나 살 위인은 절대 없다

다만 관계의 본질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거리 유지가 핵심이다. 항시 공간 확보’

너무 먼 거리는 광활하게 펼쳐진 모래사막

너무 가깝게 오래 방치된 거리는 잡초 덩굴

거리 유지 방식이 관건이니 어떻게 하는가

사람과 사람 무리에서 자신을 ‘기준!’ 하라

나의 성정性情이라는 본바탕을 깊고 고요히

나의 좋음liking을 매일 일상에서 반복하라

남의 말과 평가라는 비와 바람에 내 속 젖게 마라

그때그때 날씨가 어떻든 몸만. 하늘빛에 젖은 내 속

난 마음껏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 본 적이 단 한 번 없다

진실로. 그러나 마음 다해서
살다 보니 이렇게 나는 됐고

다한 마음은 빗바랜 유적 되어
누가 내가 보아도 흔적뿐이네

이런 와중에도 맘과 정성 다해
유물이라도 발굴하려 움직인다

유품도 없는 유적지 형편이라도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니

산 몸 일으켜 세워 작고 적게라도
하루씩 순간씩이라도 새 문명 창조

내 삶은 세상이 바라볼 때 유적지
새 삶을 발원시킨 내게 세상이 유적지

세상에 오늘 형제 둘이 살고 있다
첫째 둘째가 아니고 쌍둥이 아니고

수만 번 이혼한 어머니 어제와
수만 번 약혼한 아버지 내일 사이

각자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하나 둘
기괴하게 자녀들은 오직 이들 오늘 둘

오늘 둘이 함께 오순도순 늦은 가을
화롯불 피워 놓고 담소를 하고 있다

하나 오늘이 말한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다른 오늘이 되묻는다.

‘너는?’ 이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우린 매일 똑같은 말 하며 이려고 사네?’

‘엄마는 매일 돌아가시니 지금 안 계시고
아빠는 문자와 링크만 보내고 절대 안 오고!’

오늘 하나는 늘 부모 생각에 감정 따라 산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좋아하며 오늘로만 산다

죄책도 벌도 자백도 회개도 싸움도 화해도
오해도 비난도 도망과 도피도 감소와 빈함도

이 정도면 받을 만큼 받음 한참 지났고 들을 만큼 들음
이미 초과이다.

‘미혹케 하는 자여! 이제로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내게 지어진
바로 이 십자가 지고 이 길 비록 힘겹고 삶겨워도 나는 내 길
끝까지 가리라! 이 길 매일 새롭고 매 순간 감사에 깨인 채로
걸어갈 것이다! 바로 이 앎과 방식이 의인으로 신분 변경 받은
죄인들만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 일체의 비결일 테니.’

세상 자기 성 어찌 못해 날 때려도
 세상 저기 어딘가에서 날 살리려는
 그 사랑들 인하여 죽도록 맞았을 때도
 난 거듭 줄곧 살아났고 더 살아 있다

날 깊이 연모하는 연유로 떨어져 사는
 천상의 마음씨들과 다시 만나 살 인연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의 생력으로
 매 순간 살아난다.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 이러하든 누가 없어 저리하든
 난 내 운명의 문양을 매일 수놓으며 산다
 문양의 매듭을 다 지어 나 되어 떠나리라
 사랑이 없으면 뭣도 안 되고 있으면 된다

누군가를 잠자코 들다 보면 들여다보인다
 문양을 보면 어떤 족속에 속한 인간인지
 새 실 새 문양, 오랜 빛바랜 문양. 무관!
 매듭 땀⁵³과 문양 풍격을 보면 분명히 안다

53 땀씨(글쓴이): ‘숨手+씨用’과 같이 매듭을 단정하고 단아하고 단단하게 매는 땀씨.

다수를 위한 덕과 의의 존재가 아니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신神 YHWH 야훼

소수, 아니 극소수의 덕과 의를 매일 일상
제 품에 안고 사는 자 고작 몇 명 찾다가

그 많은 절대 다수의 삶-선수들 모두를
고해苦海 아닌 불바다에서 수영하게 하였다

화와 분의 불 에너지로 발전하는 전기차들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이 비가 덮친 격이다

차량 보험, 화재 보험, 질병 보험. 생명 보험
사는 동안 입은 화에 대한 보상을 위해 든다

죽음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유는 하나
‘죽음에는 가해와 피해가 없다. 하늘 불처럼’

나의 김동길 교수님의 생전 미숫⁵⁴ 말씀.

‘김 선생? 그저 그대 길 가세요~! 그 길 걷다 보면? 길이 나오니까? 밤새 뒤척이다 보면? 금~세 새벽 노래 소리 들리니까는? 음.(미소)’

54 미숫(글쓴이): 미소+의.

자기 마음 집 설계, 건축, 관리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집 없이 사는 이들

부러울 것 없다! 제 집 한 채 못 지^人인
부끄럽기 그지없다! 남 것 제 것인 체

누구도 부러워함 그 중심에 전혀 없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인自家人

‘스스로 부끄러워함’의 제 집 없는 이들은
스스로 드러냄 없는 제 집 주인, 봐도 모른다

홀연
혼자
홀로
내가
이리
삶은,
육체
身이
아직
나를
버텨
주고
있음
그뿐
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은총

‘난 그대가 다시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이리 무언 맘⁵⁵ 하는 그이와 그간 옥죴⁵⁶ 벗고서
 함께 곁 되어 탕탕⁵⁷ 밤 지새며 마시고 마시다
 나 누군지 몰라 너 되는 꿈속 취해 보고 싶소
 그대도 그리 되 나 되는 꿈으로 깨어나 보시오

‘이 마음 지닌 그대, 더 좋아질 줄 알았소!’

상상이 결핍되어 멀리 못 나가니 이제 가세요
 그대 지금 있는 나 모르는 그곳으로 출발해요
 난 벌써 당신 모르는 깊은 산속 집에 도착했어요
 애달픔⁵⁸ 없는 애뜻함⁵⁹, 미련 없는 감사. 사랑으로

55 무언 맘(글쓴이): 무언無言+마음. 말이나 글, 몸짓 따위의 일반적 소통 방식이 아닌, 마음의 에너지가 파장으로 마음에 전달되고, 소리굽쇠 ‘잉~’ 울리듯 교통, 교감하는 사랑의 언어 방식.

56 옥죴(옥죄이다): (몸이나 가슴 따위가) 아주 답답하게 바싹 죄이거나 눌린다.

57 탕탕蕩蕩: (다가올 일이) 아무 탈이나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되어 가는 상태. (무엇이) 매우 넓고 큼. (물의 흐름이) 무척 거세고 힘참.

58 애달픔(애달프다): (마음이나 사연 따위가) 애가 닳도록 쓰리고 아프다.

59 애뜻함(애뜻하다): (마음이) 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다. (사전 첫 번째 의미) 마음이 애가 타는 듯이 깊고 절실하다.

털지 좀 말어
그만 좀 해들
천지 먼지들
터는 그대들
먼지 풀풀풀

모두 어찌
그리 할까?
먼지 털기
오직 자길
터는 자해⁶⁰

마음 트고
신뢰 하고
사람 되어
사랑 하며
살아 가요

60 자해自害: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함.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

세상 안고 붙어 사는 곳 아니구나
서로 때리고 맞고 사는 데로구나
안고 또 품고 할 줄 모르니까는
‘죽겠다’ 말 안 할 때까지 때리고
맞았다고 때리니 곁 될 이 없네

이런 와중에 난 어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참 살리려면 나를 죽여야 하나?
죽어 살아야 하나? 나를 참으로 살면!
넌 참으로 살릴 텐데! 참말로 어렵다!
참 삶의 방식, 서로 안고 곁붙어 있기

그대 꿈을 꾸고 있어요

글 덮고 있는 지금

너무도 나다운 지금 여기

아직도 내가 잘 모르는 나

그도 나이라 빛처럼 빛난다

시월 시집

十 月 詩 集